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 수법을 적용한 건축물 외관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전시 건축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Building Exterior Design Applied to Repertory Grid Developmental Method
- Focused on Small Exhibition Buildings -

윤갑근* / Yoon, Gab-Geun

정사희**/ Chung, Sa-Hee

이종영***/ Lee, Jong-Young

Abstract

The problems with the small exhibition buildings such a small gallery and art center recently constructed did not mak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specifying and did not form a big flow in the line of urban connection. Also it was deficient in the image like a cultural space because of the commercial aspects of the individual buildings.

According to this view,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teriors of the small exhibition buildings that the public prefers on the psychological side as a design theory and then, it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sirable form constitution hereafter.

In the design of the small exhibition buildings exterior that the public most prefer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constitution that operate are the most initiative as follows.

As for the principles of unity in the constitution of the small exhibition buildings exterior that the public prefers, Eigen Value is 7.573 and the explanatory force takes 21.637% at the top and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comparison of the appearance, it shows that it is a factor with the largest specific gravity. The next factors were grouped in good order: the balance, ornamental technique, change, shipping technique, rhythm, harmony, symbolic technique, area technique and adding technique.

As a result, in the design of the small exhibition buildings exterior, the architects have to constitute the principles of balance, change, rhythm and harmony by most of the unity and the symbolic technique and form technique by most of the ornamental techniques harmoniously and have to give Identity like exhibition buildings.

키워드 : Design, Perception, Exterior, Evaluation, Exhib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의 형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측면과 그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 인간생

활의 많은 영역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지만 디자인의 결과는 형태와 그 공간적 특질로 나타나는 것으로, 건축창출의 기초가 되는 형태의 질서적 원리는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잠재된 원초적 조형의지로서 변함없이 표출된다. 건축형태는 그것이 구체화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거나 복잡하든간에 사용자나 일반인들에게 어떤 지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의식적·무의식적 이전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물은 외관을 통하여 비로소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가로경관의 주된 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디자인

* 정희원,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전임강사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정희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수료

**** 본 논문은 교육부지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조선대학교 산업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의도와 요구가 쉽게 외관으로 표출 될 수 있으며, 주로 건물과 건물이 인접해서 전개되므로 가로 문화를 형성하는데 비중이 크다. 이 중 문화시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생활의 질적 개선이라는 명제 하에 시민 여가활동의 확대에 긴요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의 소규모 문화시설은 문화공간망(cultural facilities network)의 하위부문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문화교육과 함께 휴식과 오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1차적 요건인 건축물의 외관구성은 단순히 공간분할의 측면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관련된 미적 구성원리 측면과 이것을 구성하는 보조적 구성기법 측면을 고려한 인간의 감정 및 인지차원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규모 전시시설은 문화시설이라는 이미지보다 상업성적 성향에 치우친 상업용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전시관의 외관구성을 심리적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형원리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직한 형태구성의 방향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축물 외관의 의장적구성에 관한 제 이론을 고찰하고 일반인들이 인지적 평가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심리실험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 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 그 이외의 평면, 구조, 설비 측면은 제외하였다.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 전면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가로에 접해 있어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건축물의 외관은 대부분 출입구가 있는 정면이기 때문에 주된 연구대상을 현관이 있는 정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시 건축물의 범위를 미술관을 제외한 상업적 화랑(Gallery) 및 소규모 아트센터(Art center)로 한정 하였다. 소규모 전시 건축물은 건축 구법과 건축재료의 사용, 건축표현등에 있어서 그 규모적인 이점 때문에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적인 취향이나 여러 현상들이 바로 건축물에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문화를 담고 있는 전시공간 구성의 1차적 요건이 외관 구성이라 보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의 외관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개의 건물이 지향하고 있는 이미지를 전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을 이용한 심리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건축물 조형이론들 즉, 구성원리와 이를 보조하는 수단인 구성기법들이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전시 건축물 외관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공학과 대학원생, 디자인학부생, 일반학과 학부생 14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서울시내에 소재

하고 있는 전시 건축물 중 조사대상 건축물을 추출하여 건축물 주입면 파사드를 칼라 인화용 사진과 슬라이드 사진을 촬영하였다. 칼라사진과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가장 조형성이 뛰어나면서도 선호하는 건물을 선택하게 하였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 수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평가형용사를 가지고 의미분별법(S.D법)의 7단계 척도에 답하게 했다. 그 결과로 얻어진 데 이타를 가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선호빈도와 심리 인자축을 추출하였다.

2. 건축물 조형이론의 고찰

건축가가 건축설계의 전과정을 통해서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공간을 구체적으로 형태화 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질서를 주어 아름다운 형태를 창조해 내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형한다는 것은 어느 요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외관의 미도 질서를 전제로 하여 생기는 것이다. 건축의 조형언어는 건축의 실체를 구성하는 건축가의 의지, 감정, 사상의 전달 수단으로서 건축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건축물 외관의 의장적 구성에 대한 건축이론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조형언어를 미적 질서를 주는 구성원리적 측면과 이를 보조하는 구성기법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고찰, 분석함으로써 외관의 의장 구성체계를 도출하고 대상 건축물 외관 디자인의 평가기준을 추출하였다. 평가기준을 추출함에 있어 이론가나 디자이너의 특성상 일관된 요소나 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가장 일반적인 원리나 기법을 평가기준으로 추출하였다.

2.1. 건축물 외관의 조형언어 유형

건축물 외관의 조형이론을 구성원리적 측면과 구성기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표2>와 같다.

(1) 구성원리적 측면

<표 1> 구성원리적 측면에서의 이론

	조형언어유형	디자인 아론
Beardsl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적차원-통일성(질서의미), 복합성(다양성의 의미), 강렬성(창조적 의미) 2차적차원- 1차적 차원을 전제로 기타의 것은 2차적 차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적차원은 구성원리 2차적차원은 구성기법
Nakamura Yosi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리를 통일과 변화, 조화, 균형, 리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리를 역학적 관계로 설명
B.M. Ellio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성(주제, 형태, 크기, 반복, 색상, 질감, 재료의 조화성 등을 포함시킴), 변화성, 균형, 강조, 리듬, 비례, 스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성 원리를 포함적으로 설명
Anthony C. Antonia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이너의 지적도구를 종합스케일, 비례, 리듬, 통일성, 의미, 질서, 강조, 형상성, 판독성, 독자성, 다양성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적 구성원리의 기본 위에 구성기법 차원을 강조

<표 1> 구성원리적 측면에서의 이론

	조형언어유형	디자인 이론
강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요소- 점, 선, 방향과 spannung, 면, 형태, 질감, 스케일 등 구성원리- 조화와 폐조, 대비, 통일, 반복과 교체, 균형, 비례, 리듬, 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의 구성요소와 구성원리를 동시에 논함
김홍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요소-점, 선, 면, 스케일, 질감, 빛, 명암, 색채 구성원리-비례, 조화(통일, 변화, 균형, 반복, 강조,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미적 원리를 조화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조화의 기본은 구성요소이다
김정수외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의 3대 원리- 통일성, 변화성, 균형 미의 3대 보조적 요소-명암, 색, 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리차원을 논하고 있다.

(2) 구성기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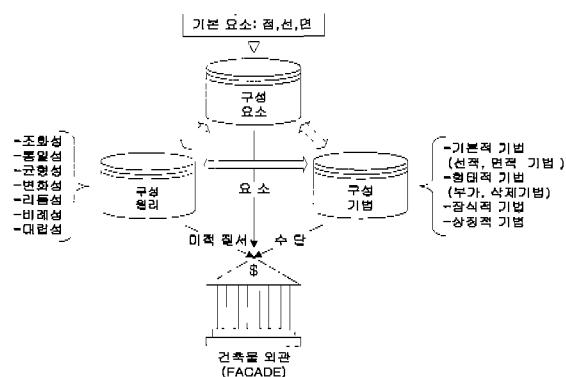
<표 2> 구성기법적 측면에서의 이론

	조형언어유형	디자인 이론
S. Gied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스의 상호관입 건축의 불물화, 건축의 조각화, 형태의 생기있는 긴장, 유기적, 기하학적 건축의 공존 건축의 역사적 발전의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리적 차원과 기법적 차원을 동시에 논하고 있다 건축발전의 3단계는 면-삭제-부가라는 차원
S.E. Rasmuss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써 Solid & Void, 채색된 면의 감독, 스케일, 비례, 리듬, 질감, 칼라, 경험, 등으로 분류 외관에서 색채의 충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적기법과 원리적 차원을 동시에 논하고 있으며 특히 관찰자의 심리적 반응을 중요시 함
Paul Frank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형태 시간적 형태 시각적 형태 목적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차원에서 외관의 부기와 삭제적 기법을 논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에서 면적처리를, 시각적 차원 형태에서는 이미지를 논함
Bruno Ze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이입 개연 도입 반응형성요인은 수평선, 수직선, 나선, 입방체, 원, 구, 타원등의 기하학적 형태의 상호 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 선적, 면적기법을 논하고 있다
D.K. C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공간구성원리를 형태학적 분석 물리적 요소-면의 Solid, Void 인식적 요소-경험 지각적 요소-이미지, 패턴, 사인,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리의 기본위에 형태구성방법을 논하고 있으며, 물리적 요소에는 면적처리를 지각적 요소에서는 상징적 기법을 논하고 있다
Michael Pa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분석을 위한 주제(issue) 구조 자연광, 접합, 평면과 입면과의 관계, 공간의 순환체계, 전체에 대한 단위관계, 복합성과, 기하학적 개념, 부가와 삭제, hierarchy (위계성), 대칭과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리적 차원 위에서 기법적 측면, 특히 상징과 장식을 주로 논하고 있다
Rovert Ventu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개념을 장식성, 적합성, 기호화 상징, 평범성, 도상성, 애매성, 등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리적 차원 위에서 기법적 측면, 특히 상징과 장식을 주로 논하고 있다

2. 건축물 외관의 의장 구성체계

건축물 외관의 의장 구성체계는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요소, 구성원리, 구성기법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는 미적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적 차원 위에서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인 구성기법을 적절히 조화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디자인을 수행해야 한다.

건축물 외관의 의장구성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 체계

3. 조사 방법 및 내용

3.1. 레퍼토리그리드 발전수법 이론적 고찰

임상심리학자인 켈리(G. A. Kelly)는 1955년에 개인인지구조(personal construct system)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론에서 켈리가 선정한 인간모델은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구축된 인지구조(construct system)라고 불리우는 각자 고유의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 인지구조에 의해서 환경 및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며, 또한 그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construct는 인간이 시각과 청각등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한 원시적 정보의 집합체인 환경을 어떤 의미가 있는 세계로서 이해할 때 필요한 인지의 단위이다. 즉 「창이크다-작다」「실내가 밝다- 어둡다」라는 형용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대립 개념으로서, 다양한 이들 construct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창이크면, 실내가 밝다」라고하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구성하는 인지의 구조 전체가 인지구조인 것이다. 개인인지구조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construct를 상위에 두고, 「창이크다」와 같은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construct를 하위에 두는 위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인인지의 과정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창을 볼 때, 시각을 통하여 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비교하여 「창이크다-작다」라고 하는 하위 construct를 먼저 인지하고, 이어서 창 이외의 여러 가지 조건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위 construct를 인지하는 것이다. 레퍼토리 그리드 수법은 피험자에게 엘리먼트라고 불리우는 자극을 여러개 제시하고 비교시키고 난 뒤, 이것들의 유사점 혹은 상이점을 자유롭게 대답하게 함으로써 피험자의 construct를 피험자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레퍼토리 그리드법은 원래, 임상심리학에 있어서 심리요법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 환자들에 대한 대인관계의 인지구조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을 환경평가에 이용하면, 환경에 대한 인지구조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레퍼토리 그리드법에 의한 환경의 인지구조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onstruct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추출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사실 실용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도입한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은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평가구조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레퍼토리 그리드법 (Repertory Grid)을 발전시킨 수법이다. 레퍼토리 그리드법이 단순히 엘리먼트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항목을 추출하는데 비하여,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은 피험자들에게 주어진 엘리먼트간의 우열을 판단시키고, 그 판단기준을 초점으로 평가에 관여하는 construct 즉 평가항목만을 추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수법의 과정은 첫째, 엘리먼트작성, 둘째, 평가항목의 추출, 셋째, 래더링(laddering)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연구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이론 측면에서 건축물의 외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을 이용한 심리실험을 통해 그 평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3.2. 조사 대상 건축물 및 피험자의 선정

지역적인 범주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5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전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전화번호부 및 Internet을 이용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전시시설은 181개로 조사되었다. 181개의 전시 건축물의 전화번호를 근거로 하여 전화 상담한 결과 임대가 아닌 전용건축물은 53개로 조사되었다. 이 53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직접 현장 답사하여 현관부가 있는 주정면을 슬라이드 및 일반사진으로 담았다. 사진 활용은 시점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시점으로부터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한정시켜 작성하였다.

53개의 사진을 가지고 외관 디자인에 관한 선호도 및 심리실험을 할 경우 대상 건축물의 수가 많아 피험자가 쉽게 지루해하고,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 외관의 조형성을 평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건축과 대학원생 10명과 디자인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20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53개 외관을 슬라이드와 칼라사진을 병행하여 제시하고 ‘가장 조형성이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사진을 10개씩 순위별로 선택해 주시오’라는 예비 선호도를 실시하여, 빈도수가 높은 1순위부터 30순위까지 최종적으로 30개의 외관사진을 본 조사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다.

대상 건축물 외관 사진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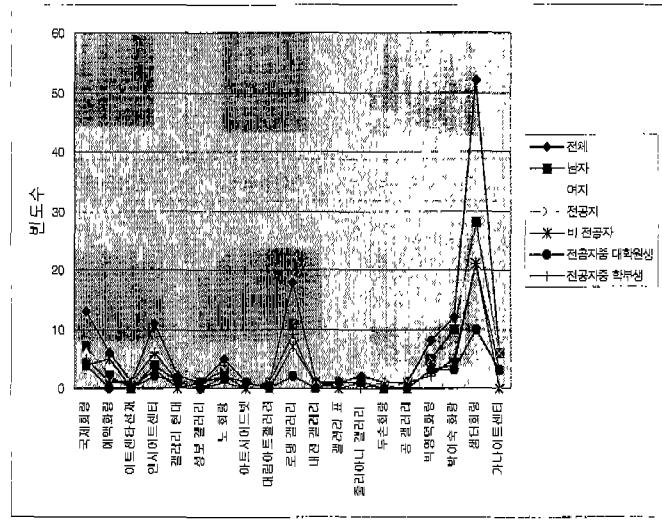
<표 3> 대상 건축물 외관 사진

국제화랑	경인아트크래프트샵	가나아트	예맥화랑
아트센터선재	인사 아트센타	현대갤러리	설보갤러리
아트스페이스 서울	노화랑	학교제	Art side • net
대림화랑	로댕 갤러리	관훈 갤러리	Kopac
내잔 갤러리	표 화당	인사 갤러리	가람 화랑
줄리아나 갤러리	두손 갤러리	공 갤러리	박영덕 화랑
유경 갤러리	갤러리 퓨전	박여숙 화랑	센터 화랑
종로 갤러리	가나 아트센타		

3.3. 선호도 조사

(1)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차 예비 선호도 조사의 결과 30개의 외관 사진이 추출되었다. 이 추출된 외관사진을 가지고 2000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1월 6일까지 건축공학과 대학원생과 디자인학부 3·4학년생을 전공자 집단으로, 일반학과 학부생을 비전공자 집단으로 하여



<그림 2> 집단별 선호도

총 143명을 대상으로 슬라이드와 칼라사진 30장을 1매당 1분씩 병행하여 보여주고 ‘가장 조형성이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건물 하나만을 선택해 주시오’라는 선호도 조사와 그 선택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한 심리 실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대상 건축물 외관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와 실험 대상 집단별 분포는 위의 <그림2>와 다음의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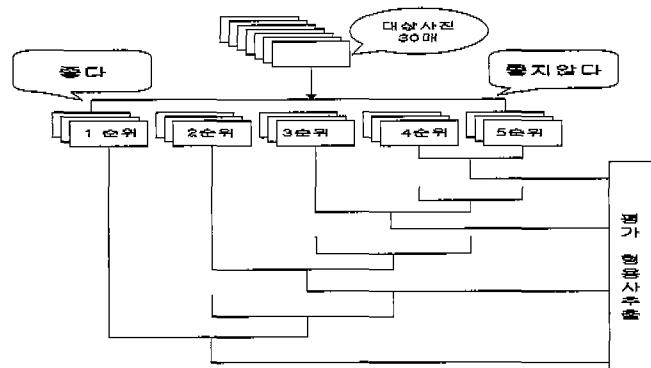
<표 4> 선호도 조사·심리실험 대상자의 집단별 분포

	남	여	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전공자	60	31	58	33	91
비 전공자	23	29	52	-	52
계	83	60	110	33	143

4. 심리실험 내용 및 통계 분석

4.1. 고유 형용사의 추출을 위한 면접 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전시 건축물의 외관을 평가 대상으로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 수법을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을 추출할 때 엘리먼트(element) 사이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과 폭넓고 다양하게 많은 수의 엘리먼트를 준비할 수 있다는 2가지 점을 고려하여 대상 건축물 외관의 칼라사진을 엘리먼트로 선정하였다. 이 때 칼라 사진에 의해 제시된 환경



<그림 3>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을 이용한 고유형용사 추출

에 대한 평가와 실제 환경에 대한 평가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기준 연구자들의 결과로부터 칼라사진을 엘리먼트로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험자의 구성은 환경평가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건축과 대학원생 10명, 디자인학부 3·4학년생 20명을 (남: 20명, 여: 10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엘리먼트(element)의 선정, 평가항목의 추출, 래더링(laddering)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① 엘리먼트의 선정

조상대상 건축물 외관사진 30장을 엘리먼트로 선정하였다.

② 평가항목의 추출

먼저 ①단계에서 선정된 30장의 칼라사진을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마음에 드는 전시 건축물 외관]이라는 종합평가의 관점에서 최대 5단계로 분류시켰다. 각 단계에서 장수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각기 달리 평가된 조를 피험자 앞에 제시하여, 각 조를 보다 하위의 조와 비교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어, 그 조의 건축물 외관을 보다 마음에 든다고 판단한 이유를 피험자 자신의 언어에 의해 추출하여, 이 것을 평가항목으로서 기록하였다. 다음과 같은 교시를 주며 진행하였다.

[이 쪽의 조(하위의 조)들보다 이 쪽의 조(상위의 조)를 마음에 드는 전시 건축물 외관으로 평가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를 어떤 사항이어도 상관없으니 생각나는대로 한 가지씩 말해 주십시오.]

피험자가 새로운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찾아내지 못할 경우는 다음 단계의 상위의 조와 그 보다 하위의 조들을 비교시키면서 평가항목 추출하였다.

③ 래더링(Laddering)

래더링이란, 어느 인지구조의 상위·하위의 인지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 기법에 의하면 평가항목 상호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평가의 메카니즘을 구조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고유 형용사를 추출할 경우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 수법의 상위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므로 래더링은 상기 ②단계에서 추출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하여 각 피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시를 주면서 실시하였다.

상위의 평가항목을 추출할 경우 [○○○해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 당신에게 있어○○○하면 왜 맘에 드는지, 그 이유를 형용사 어귀를 사용하여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래더링을 실시하여 ②단계의 평가항목을 추출하여 ②단계의 평가 항목과 관련된 상위 평가 항목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형용사중 빈도수가 5이상인 형용사만을 추출하였다.

<표 5> 자발적 평가항목 및 상위평가항목의 체크리스트

피험자의 자발적 평가 항목	래더링에서 유도된 상위 평가항목 (고유형용사 추출)
곡면구성이 마음에 든다	흐름이 있다(5) 둘둘다(4) 평坦하다(5) 원활하다(1) 균형감이 있다(7)
한국적 지붕이 마음에 든다(4)	수직적이다(4) 솔직하다(4) 상승감이 있다(3) 직선적이다(4) 경쾌하다(2) 융통성이 있다(1)
외관의 유리구성이 마음에 든다(16)	깨끗하다(2) 상쾌하다(1) 경쾌하다(4) 독특하다(3) 수직적이다(5) 산뜻하다(1) 직선적이다(3) 장식적이다(5) 깔끔하다(2) 조화롭다(6)
질감이 마음에 든다(20)	깨끗하다(1) 산뜻하다(1) 소박하다(3) 부드럽다(7) 깔끔하다(2) 거칠다(4) 상쾌하다(2)
건물형태가 마음에 든다(28)	분절되어있다(4) 덧붙혀 있다(4) 통일성이 있다(9) 모방적이다(4) 불룩하다(6) 날카롭다(6) 멋있다(11) 율동적이다(5) 균형잡혀 있다(6) 입체적이다(6) 소박하다(2) 통적이다(5) 삭제시킨 형태이다(4) 조화롭다(5) 철가되어있다(4) 수평적이다(5)
건물의 외관구성이 독특하여 좋다(7)	반복적이다(5) 신기하다(2) 덧붙혀 있다(5) 삭제된 형태이다(2) 왜곡되어있다(4) 평탄하다(2) 첨가된 형태이다(5) 치장되어있다(3) 뾰족하다(3) 융통성이 있다(5)
창의 구성이 좋다(13)	깨끗하다(2) 개방감이 있다(5) 수직적이다(3) 귀엽다(3) 직선적이다(3) 수평적이다(6)
규칙적이어서 마음에 든다(9) 안정감이 있어 마음에 든다(17) 단순해서 마음에 든다(2)	규칙적이다(11) 질서적이다(10) 안정감이 있다(10) 정연하다(7) 단순하다(7) 불안하지 않다(4) 통일성이 있다(7)
색체가 마음에 든다(9) 색체가 조화를 이룬다(4) 색체가 통일적이다(3) 세련되었다(7)	통일감이 있다(4) 변화감이 있다(4) 현란하지 않다(4) 화려하다(4) 세련되다(4) 단순하다(4) 차분하다(3) 아름답다(4) 조화롭다(4)
건물이 분절되었다(3)	대칭적이다(4) 멋있다(2)
비례가 마음에 든다(8)	질서적이다(11) 통일성이 있다(4) 좌우가 비슷하다(7) 상하가 비슷하다(6) 균형잡혀 있다(7) 수평적이다(6) 안정감이 든다(9)
아름다워서 마음에 든다(4) 유명작품을 닮아서 마음에 든다(2)	멋있다(3) 화려하다(7) 아름답다(11) 모방적이다(7) -와 닮았다(5)
현란하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7) 대칭이어서 마음에 든다(3)	현란하지 않다(5) 정연하다(7) 평탄하다(1) 대칭적이다(3)

면접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평가 형용사는 57개였다.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 우측의 <표 6>과 같다. 이중 빈도수가 5이상인

형용사는 38개였다. 38개 형용사 중에서 [수직적이다], [삭제시킨 형태이다], [소박한],은 각각 [수평적이다], [첨가시킨 형태이다], [장식적인]의 반대되는 형용사이므로 고유형용사에서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5개의 고유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형용사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위의 <표 5>는 자발적 평가 항목에 대한 피험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형용사로 답한 상위 평가항목의 체크리스트로서 여기서 나타난 형용사를 가지고 다음의 4장의 심리실험을 실시하였다. 형용사의 추출과정에서 그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피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의 형용사도 다수 있었으나 제외 시켰다

<표 6> 면접조사에 나타난 형용사 빈도표

형용사	빈도수	형용사	빈도수	형용사	빈도수
통일성이 있는	24	평탄하다	8	깨끗하다	4
질서적인	21	대칭적이다	7	깔끔하다	4
균형잡힌	20	부드럽다	7	거칠다	4
안정된	19	좌우가 비슷하다	7	둥글다	4
규칙적인	17	경쾌하다	6	분절되어있다	4
수평적인	17	날카롭다	6	변화감이 있다	4
멋있는	16	불룩하다	6	불안하지 않다	4
아름답다	15	삭제시킨형태이다	6	솔직하다	4
조화롭다	14	상하가 비슷하다	6	신뜻하다	4
정연하다	14	율동적이다	6	세련되었다	4
수직적이다	12	입체적이다	6	왜곡되어있다	4
단순하다	11	융통성이 있다	5	차분한	3
모방적이다	11	장식적인	5	귀엽다	3
화려하다	11	개방감이 있다	5	똑똑하다	3
직선적이다	12	동적이다	5	뾰족하다	3
덧붙혀있다	9	-와 닮았다	5	상승감이 있다	3
치장된	9	호흡이 있다	5	상쾌하다	3
첨가된	9	반복적이다	5	신기하다	2
현란하지 않은	9	소박한	5	원활하다	1

<표 7> 심리실험에 사용한 형용사

V1. 규칙적인-불규칙적인	V19. 균형잡혀있다-균형잡혀있지 않다
V2. 단순하다-복잡하다	V20. 상하가 비슷하다-상하가 다르다
V3. 질서적이다-무질서하다	V21. 조화롭다-조화로움이 없다
V4. 안정감이 있다-안정감이 없다	V22. ~와 닮았다-~와 닮지 않았다
V5. 날카롭다-둔하다	V23. 입체적이다-평면적이다
V6. 불룩하다-오목하다	V24. 좌우가 비슷하다-좌우가 다르다
V7. 현란하다-현란하지 않다	V25. 수평적이다-수직적이다
V8. 정연하다-혼란하다	V26. 호흡이 있다-호흡이 없다
V9. 아름답다-추하다	V27. 개방적이다-폐쇄적이다
V10. 직선적이다-곡선적이다	V28. 경쾌하다-경쾌하지 않다
V11. 덧붙혀있다-도려내어 있다	V29. 평탄하다-평탄하지 않다
V12. 통일성이 있다-변화 있다	V30. 장식적인-소박한
V13. 모방적이다-모방적이지 않다	V31. 부드럽다-날카롭다
V14. 화려하다-수수하다	V32. 융통성이 있다-고정적이다
V15. 멋있다-멋이 없다	V33. 동적이다-정적이다
V16. 율동적이다-율동적이지 않다	V34. 반복적이다-반복적이지 않다
V17. 치장되었다-치장되어있지 않다	V35. 대칭적이다-비대칭적이다
V18. 첨가시킨 형태이다-삭제시킨형태이다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 수법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143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심리실험을 실시했어야 옳으나 대상인원이 너무 많고 아직 기초적인 단계인 관계로 30명의 모집단에 한정된 조사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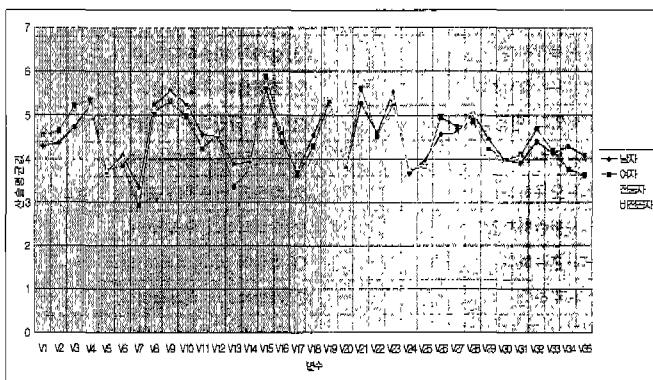
4.2. 대상 건축물 외관에 대한 심리실험 및 분석

(1) 심리실험

본 연구의 심리실험은 건축과 대학원생, 디자인학부 3·4학년생, 일반학과 학부생, 143명을 대상¹⁾으로 슬라이드와 칼라사진을 병행하여 제시²⁾하고 가장 선호하는 건물 한 개를 선택하게 하여, 그 선택한 건물 한 개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출된 35개의 양극형 형용사를 가지고 S.D법 7단계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표 8> 피실험자 집단별 대상 건축물 외관에 대한 S.D척도의 산술 평균값

변수	남자	여자	전공자	비 전공자	변수	남자	여자	전공자	비 전공자
V1	4.2892	4.550	4.4385	4.2500	V19	5.3976	5.3500	5.4286	5.2885
V2	4.3750	4.6500	4.4945	4.4808	V20	3.7470	3.7833	3.7363	3.8077
V3	4.7349	5.2167	4.8789	5.0385	V21	5.2651	5.6333	5.4396	5.3846
V4	5.2289	5.3500	5.2038	5.3654	V22	4.5904	4.5333	4.7802	4.1923
V5	3.6988	3.7500	3.7693	3.6346	V23	5.5542	5.2667	5.3297	5.6154
V6	4.0843	3.8667	4.0440	3.9038	V24	3.6747	3.7500	3.7802	3.5769
V7	3.3614	2.9167	3.2088	3.1154	V25	3.9786	3.8500	3.8571	4.0365
V8	5.2410	5.0833	5.1538	5.2115	V26	4.5663	4.9667	4.7143	4.7692
V9	5.5542	5.3167	5.5165	5.3462	V27	4.6024	4.7333	4.5934	4.7692
V10	5.2651	4.9833	5.3297	4.8269	V28	5.0482	4.8667	5.0659	4.8077
V11	4.5783	4.2500	4.3626	4.5769	V29	4.4485	4.2500	4.3626	3.9341
V12	4.5060	4.5500	4.5824	4.4231	V30	3.9880	3.9833	3.9341	4.0769
V13	3.8554	3.3500	3.8132	3.3462	V31	3.9277	4.1000	4.0549	3.9038
V14	3.9998	3.7667	3.7912	4.0000	V32	4.4096	4.6833	4.6044	4.3846
V15	5.5988	5.8833	5.7038	5.9038	V33	4.1446	4.2000	4.3626	3.8269
V16	4.3855	4.6333	4.6813	4.1538	V34	4.2892	3.7667	4.0989	4.0192
V17	3.7349	3.6333	3.8242	3.4615	V35	4.0843	3.6333	3.8132	4.0385
V18	4.5422	4.3000	4.4505	4.4231					



<그림 4> 피험자 집단별 대상 건축물 외관에 대한 S.D척도에 대한 산술 평균값

- 환경평가에 있어서 전공-비전공, 남-녀사이의 유의차가 없다는 기준연구와 앞절의 선호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실험대상 건축물 외관 슬라이드 30매를 1매당 1분씩 보여주고 칼라사진과 병행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피험자 집단별 S.D법에 의한 평정척도 및 평정 평균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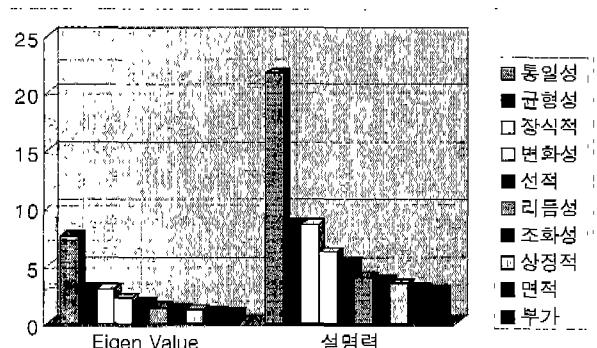
(2) 통계분석을 통한 심리인자축 추출

S.D법의 양극형용사로 평가된 Data를 가지고 SPSS/PC+ 7.5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10개의 심리 인자축을 추출하였다. Varimax 회전을 통한 Factor Analysis 결과는 <표9>과 <그림5>와 같다. 이의 결과를 가지고 인자적재치가 0.5이상인 변수를 가지고 군집한 결과 10개의 심리 차원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심리실험 분석의 내용과 같다. 여기서 Varimax 회전은 25회 이내에서 모두 수렴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는 그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9> Varimax법에 의한 성분행렬(인자 부하량)

인자적재치(factor loading)>0.5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actor 8	Factor 9	Factor 10
Eigen value	7.573	3.004	2.995	2.164	1.845	1.402	1.338	1.212	1.059	1.021
설명력(%)	21.637	8.582	8.556	6.184	5.272	4.008	3.824	3.462	3.026	2.916
V1	0.666	0.281	-0.266E-02	1.546E-02	0.102	-0.615E-02	-0.219	0.533E-02	-3.15	-5.369
V2	0.547	-0.655E-02	-0.145	-0.187	-0.184	-0.155E-02	-0.257	0.446E-02	-0.145	-0.307E-02
V3	0.763	0.763	0.153	-0.598E-02	-0.491E-02	-0.209	-0.244	0.397E-02	4.745E-02	-0.145
V4	0.715	0.15	-0.112	-0.139	-0.184E-02	-0.198	-0.478E-02	0.474E-02	0.213	-0.142
V8	0.607	-0.239E-02	-0.197	-0.149	0.556E-02	-0.578E-02	0.339	-0.228E-02	0.628E-02	-0.204E-02
V12	0.573	0.241	-0.201	-0.286E-02	-0.178E-02	-0.152E-02	0.114	0.149	0.216	0.109
V19	0.534	0.534	0.291	-0.32	-0.287E-02	0.137	0.212	0.139	0.191	-0.723E-02
V21	0.520	0.174	-0.180E-02	0.284E-02	0.231E-02	0.270	0.384	-0.315E-02	0.160	-0.172
V20	0.339	0.544	0.711E-02	0.278	0.118	-0.302E-02	-0.227	0.702E-02	-0.131	0.117
V24	0.185	0.772	0.227E-02	-0.111	0.157	-0.102	-0.113	0.600E-02	-0.226	-0.382E-02
V34	0.154	0.800	0.571E-02	-0.558E-02	-0.144	-0.571E-02	0.606E-02	0.410E-02	0.143	0.504E-02
V35	0.227	0.840	-0.102	0.321E-02	0.170E-02	-0.672E-02	-0.634E-02	0.427E-02	-0.153E-02	-0.120E-02
V7	-0.294	-0.155E-02	0.533	0.160	0.273	-0.215E-02	-0.132E-02	0.333	0.114	0.348E-02
V14	-0.159	-0.125E-02	0.782	0.125	0.168	0.616E-02	0.195	-0.102E-02	4.475E-02	-0.257E-02
V17	-0.133E-02	0.478E-02	0.807	0.155	-0.981E-02	-0.135E-02	0.933E-02	-0.578E-02	0.988E-02	0.988E-02
V30	-0.223	-0.273	0.529	0.175	0.187	0.208	-0.238E-02	-0.245E-02	-0.115	0.100E-02
V27	-0.122	-0.355E-02	0.478E-02	0.1785	0.674E-02	0.438E-02	0.107	0.215E-02	0.171E-02	0.311E-02
V28	-0.149	0.174E-02	0.155	0.164E-02	0.243	0.320	0.199	-0.104	0.455E-02	-0.178E-02
V32	0.113	-0.307	0.124	0.721	-0.124	0.416E-02	-0.338E-02	-0.148E-02	0.906E-02	-0.152
V33	-0.193	-0.427E-02	0.265	0.604	-0.529E-02	0.347	-0.520E-02	0.702E-02	0.932E-02	-0.185
V5	-0.183	0.122	0.267	0.928E-02	0.861	0.163	0.338E-02	-0.255E-02	0.195	0.101
V16	-0.122	-0.161	0.150	0.203	-0.253	0.103	-0.222	0.222	0.103E-02	-0.323E-02
V26	0.597E-02	0.249E-02	0.938E-02	0.220	-0.114	0.733	0.575E-02	0.132	0.239	0.761E-02
V9	-0.667E-02	-0.158	0.262	0.666E-02	-0.246E-02	0.503E-02	0.738	-0.107	0.274E-02	-0.200E-02
V15	-0.570E-02	-0.387E-02	0.722E-02	0.473	-0.124	0.710E-02	0.532	-0.193	-0.739E-02	0.203
V13	0.209E-02	0.168	-0.237E-02	-0.228	0.205	0.764E-02	-0.133	0.707	-0.155E-02	-0.275E-02
V22	0.267	0.528E-02	0.281E-02	0.981E-02	-0.159	0.405E-02	0.288E-02	0.794	-0.145E-02	0.129
V6	-0.147	0.170E-02	0.143	0.536E-02	-0.336	0.662E-02	-0.177	0.115	0.645	0.371E-02
V23	0.629E-02	-0.201	0.476E-02	0.231	0.122	0.152	0.220	-0.210	0.681	0.682E-02
V11	-0.363E-02	0.458E-02	-0.171E-02	-0.158E-02	0.617E-02	0.455E-02	-0.359E-02	0.779E-02	-0.347E-02	0.829
V18	-0.114	-0.452E-02	0.370	-0.185	-0.399E-02	0.303E-02	0.233	-0.193E-02	0.222	0.669



<그림 5> 심리인자축의 설명력 및 Eigen Value

(3) 심리실험의 분석

35개의 평가형용사를 가지고 전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표 10>은 인자분석 결과에 따른 인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① Factor 1에 속해있는 8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7.5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21.637%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통일의 원리를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1을 통일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 건축물 외관의 의장구성에서는 통일성의 원리가 제1인자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심리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Factor 2에 속해있는 4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3.004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8.582%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균형의 원리를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2를 균형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③ Factor 3에 속해있는 4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2.995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8.556%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장식적인 기법을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3을 장식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④ Factor 4에 속해있는 4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2.164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6.184%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변화성의 원리를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4를 변화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⑤ Factor 5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845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5.272%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선적인 기법을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5을 선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⑥ Factor 6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402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4.006%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리듬성의 원리를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6을 리듬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⑦ Factor 7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338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3.824%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조화의 원리를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7을 조화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⑧ Factor 8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212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3.462%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상징적인 기법을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8을 상징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⑨ Factor 9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059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3.026%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면적인 기법을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9를 면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⑩ Factor 10에 속해있는 2개의 형용사쌍들은 Eigen Value가 1.021로, 이 Factor로서 전시 건축물 외관 의장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2.916%이다. 이들 형용사쌍들은 부가적인 기법을 대별해주고 있으므로, Factor 10을 부가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0> 인자분석 결과에 따른 인자 분포

Factor	고유 형용사	심리 인자축	
Factor 1	규칙적인 단순하다 질서적이다 안정같이있다 정연하다 통일성이 있다 균형잡혀있다 조화롭다	불규칙적인 복잡하다 무질서하다 안정같이없다 혼란하다 변화감 있다 균형잡혀있지않다 조화롭지않다	통일성
Factor 2	상하가 비슷하다 좌우가 비슷하다 반복적이다 대칭적이다	상하가 다르다 좌우가 다르다 반복적이지 않다 비대칭적이다	균형성
Factor 3	현란하다 화려하다 치장되었다 장식적인	현란하지않다 수수하다 치장되어있지않다 소박한	장식적인 기법
Factor 4	개방적인 경쾌하다 융통성있다 동적이다	폐쇄적인 경쾌하지않다 고정적이다 정적이다	변화성
Factor 5	날카롭다 직선적이다	둔하다 곡선적이다	선적기법
Factor 6	율동적이다 흐름이있다	율동적이다 흐름이없다	리듬성
Factor 7	이를단다 멋있다	추하다 멋없다	조화성
Factor 8	모방적이다 ~와 닮았다	모방적이지않다 ~와 닮지않았다	상징적기법
Factor 9	볼록하다 입체적이다	오목하다 평면적이다	면적기법
Factor 10	덧붙혀있다 첨가시킨형태이다	도려내어 있다 삭제시킨형태이다	부기기법

4.3. 심리실험 결과의 신뢰도 검증

본 심리실험의 신뢰도 검증 결과를 보면 신뢰도 계수 α 값³⁾이 0.6109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3)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문항 전체 수준일 경우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강병서외 3인, SPSS/ PC+ 통계분석, 무역 경영사, 1997.

<표 11> 심리실험의 신뢰도 검증

RELIABILITY ANALYSIS - SCALE(ALPHA)		
Hotelling's T-Squared = 875.5934	F=19.7680	Prob.=0.000
Degrees of Freedom :		
Numerator = 34 Denominator = 109		
Reliability Coefficients : 35 items		
Alpha = 0.6109		Standardized item alpha = 0.6201

5. 결론

현재 건축되어진 소규모 전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장소의 성격을 특정화시키지 못한 채 도시적인 맥락에서 큰 흐름을 형성치 못하고 개개의 건물이 갖는 상업성 때문에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결여 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자이너들의 조형이론을 고찰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의장 구성체계를 도출하고 디자인 평가 기준을 추출하여 심리적인 측면에서 외관 디자인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외관구성 방향을 제시함을 시도 하였다. 이에 도출된 디자인 평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전시 건축물 외관구성에서 통일성의 원리는 Eigen Value가 7.573이고 설명력은 21.637%로 제1인자로서 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관의 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인자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인자는 균형성과 장식적인 기법, 변화성, 선적기법, 리듬성, 조화성, 상징적 기법, 면적기법, 부가 기법 순으로 그룹핑 되었다.

(2)조화성 원리와 균형성·비례성·리듬성의 원리는 통일성을 이루는 원리이면서 각각 독립적인 Factor를 이루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3)구성원리의 보조적인 수단인 구성기법은 장식적기법, 선적기법, 면적기법, 부가 기법의 순으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전시 건축물 외관을 설계함에 있어 건축디자이너는 통일성을 주로 하여 균형성, 변화성, 리듬성, 조화성의 원리와 장식적 기법을 주로 하여 상징적, 형태적 기법들을 조화 있게 구성하여 문화시설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전시 건축물 외관의 디자인 평가에 관하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건축물 외관 표현양상은 건축가의 예술적 역량과 건축적 예술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면에서도 지나친 자기과시적 표현요구를 자제하고 주변의 context와의 조화, 창의성, 예술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절제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보다나은 문화공간,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을 창출해야 하는 건축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시 건축물을 디자인 이론에서 평가하여 앞으로 설계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 차원적 엘리먼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3차원적 자료를 이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ell, G. A.,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Vol.1 and 2., W.W. Norton, New York, 1955.
2. Correy, A. Visual Perception and scenic Assessment in Australia, Ifla Yearbook, 1983.
3. Osgood, C. E., The Measurement of Meaning, Illinois Univ. Press U.S.A., 1957.
4. Holahan, C. J.,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Inc., New York, 1982.
5. Francis D. K. Ching, Architecture : Form space & order, 전감 역, 국제출판사, 서울, 1985.
6. 강병서 외 3인, SPSS/PC+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7.
7. 박규현·김정재, 조형론, 기문당, 1996.
8. 권선국, 대학캠퍼스 건물에 대한 시각적 질의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9. 이진숙, 레퍼토리 그리드 발전수법을 이용한 주거환경의 평가구조모델 추출, 한국 주거학회지 제2권 제1호.
10. 송대호, 건축물의 형태분석을 통한 도시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2. pp.217-228.

<접수 : 2001. 1. 20>